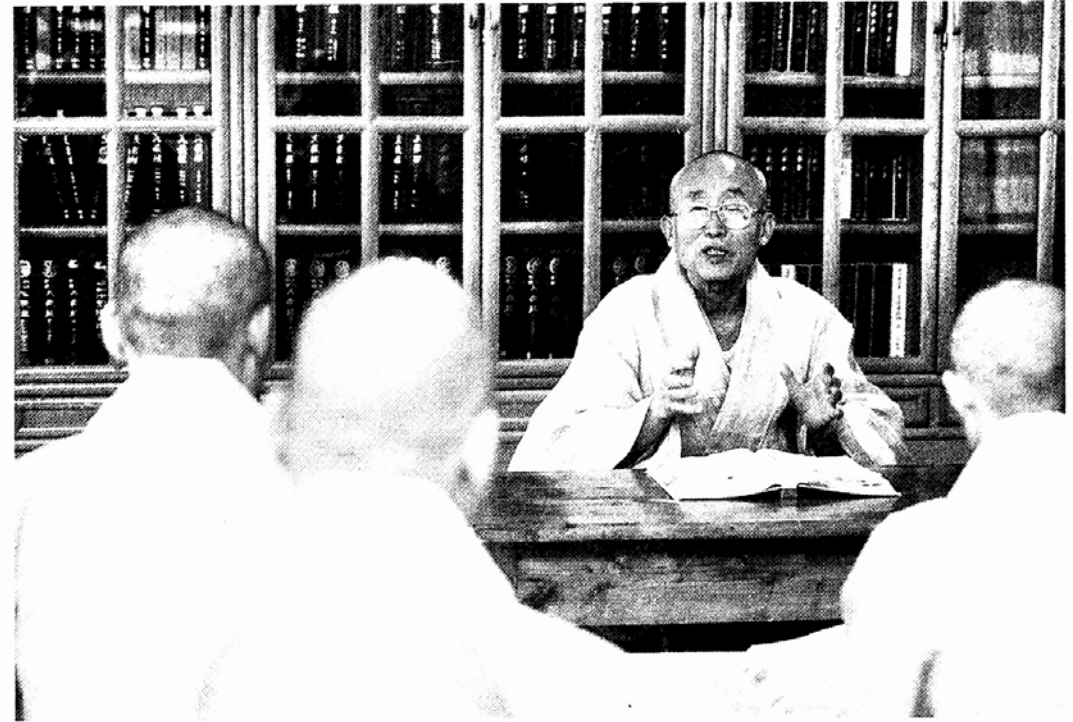


월운스님

봉선사 조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인데...”



◀누구를 대하거나 가식 없고 겸손하고 유머 섞인 말로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는 월운스님.

“불교 믿는 불자라면 명분 꼬달리지 말고 자신 스스로 다스려야”

4월 초파일과 7월 보름날인 백중, 그리고 동 하인거 결제 해제 때에만 법문 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법문시간 또한 예전에 비해 많이 짧아졌다. “다른 선사들처럼 ‘이것을 알겠느냐’ 하고 짧게 법문을 하라는 구만.” 스님은 법문시간이 짧아진 이유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했다.

기자는 대학시절 봉선사에 수련회를 온 적이 있었다. “스님 제가 대학생 때 봉선사에 와서 절 마당을 걷고 계신 스님께 법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렸더니 뭐라 하셨는 줄 아세요? ‘법문은 무슨 법문이며,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인데 내 법문은 들어 뭐할려고’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요즘

도 그러세요?”

“그랬어!” 스님은 잠시 그런 때가 있었나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조실 됐는데, 그때와는 달라져야지. 그때는 새소리, 물소리 했지만 지금은 물소리, 새소리 하지. 허허...” “호호호...” 기자와 스님 사이에 한동안 즐거운 웃음이 오갔다.

스님께 10여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으시다고 말씀드리니 스님은 또 “도(道)가 안 늘었다는 얘기가 뭐. 근데 어떻게 변치 않아, 변했지 많이 변했어” 하신다.

스님을 처음 뵈 것은 10여년 전이었지만 스님은 그 훨씬 전부터 봉선사에 주석하고 계셨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늘의 봉선사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스님은 6.25 전쟁때 소실된 봉선사를 오늘의 모습으로 중창하신 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7년여를 거슬러 올라간 1960년대 중반. 스님은 은사인 운허스님을 따라 다니다 봉선사 일을 맡게 되었다. 그때 고찰이었던 봉선사 당우들은 전쟁 통에 모두 소실돼 대웅전도 없고, 기거할 요사채조차 없었다. 건물은 커녕 사람 살기도 힘들 정도였다. 스님은 운허스님의

뜻을 따라 봉선사로 보따리를 싸 들고 들어가 한동안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한 사람 먹을 쌀도 없을 정도로 궁핍한 살림 속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스님이 직접 꾸러가야 했다. 그 무렵 어느 스님이 봉선사 운허당을 다 지어놓고,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병명이 영양실조였다 하니 그 궁핍하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스님은 전쟁으로 소실된 봉선사의 당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원해 나갔다. 봉선사 보다 형편이 나은 절의 스님들이 뭇하러 그 고생을 하느냐며, 그만 두고 다른 데로 가라고도 했지만 스님은 은사인 운허스님이 계시고, 오랜 세월 그곳을 지켜온 조상 스님들이 숨쉬는 선산 도량이자 한국불교의 역사라 숨쉬는 본산인 봉선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혼자 밥 짓고, 빨래하며 살다가, 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나둘 모여든 젊은 학인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왔다.

37년 봉선사와의 인연이 그러했듯 스님과 <한글대장경> 번역사업 또한 땀과 열수 없는 관계다. 아니 <한글대장경> 이 아니고서는 월운스님을 이야기 할 수 없

뜻을 따라 봉선사로 보따리를 싸 들고 들어가 한동안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한 사람 먹을 쌀도 없을 정도로 궁핍한 살림 속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스님이 직접 꾸러가야 했다. 그 무렵 어느 스님이 봉선사 운허당을 다 지어놓고,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병명이 영양실조였다 하니 그 궁핍하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스님은 전쟁으로 소실된 봉선사의 당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원해 나갔다. 봉선사 보다 형편이 나은 절의 스님들이 뭇하러 그 고생을 하느냐며, 그만 두고 다른 데로 가라고도 했지만 스님은 은사인 운허스님이 계시고, 오랜 세월 그곳을 지켜온 조상 스님들이 숨쉬는 선산 도량이자 한국불교의 역사라 숨쉬는 본산인 봉선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혼자 밥 짓고, 빨래하며 살다가, 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나둘 모여든 젊은 학인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왔다.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뇌암선사 ‘一貫’

선사의 범명은 보우(普雨), 법자는 뇌암(懶庵), 호는 허응당(虛應堂)이다. 선사의 출생과 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허응당집>, <뇌암집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중종 4년(1509)에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게 통설이다. 선사는 유년에 양친을 여의고 절(寺) 양주 용문사로 추정)에 들어가 지행 선사의 행자로 몇 년 보낸 뒤 지행 선사를 따라 금강산 마하연에 들어가 수계하였다.

용문사로 돌아온 선사는 23세까지 불서와 유서를 공부하고, 다시 마하연에 들어가 웅맹정진하였다. 6년이 되는 해 어느 날 선사는 흐르는 물 소리를 듣고 환연대오하였다.

일관(一貫)
一貫千殊妙聰明(일관천수묘총명)
森羅萬象都自己(삼라만상도자기)

졸 흐르네.

선사는 봉은사의 주지 명곡대사가 인퇴(引退)하면서 주지에 추천되었다. 선사는 명종(明宗) 3년 12월 15일에 문정왕후로부터 봉은사 주지로 임명받아 장부(杖赴)하였다.

선애(禪愛)

心本虛明沒惹塵(심본허명몰야진)
纒纒修鍊隔三千(재재수련격삼천)
非臺古鏡光常照(비태고경광상조)
無樹菩提體自圓(무수보제체자조)
隱隱俯仰行坐裏(은은부양행좌리)
昭昭談笑視聽邊(소소담소시청변)
迷人喚作精神會(미인환작정신회)
識者通知最上禪(식자환지최상선)

마음은 본래 허명한 것으로 티끌을 일으킬이 없는 것. 도(道)를 닦는다는 생각을 함으로 3천의 사상(事像)이 가로 막힌다.

일념으로 망상 천만번 끊어

불법의 지혜 얻으니

일념으로 망상을 천만번 끊어 불법의 지혜를 얻으니,
천지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선사는 마하연에서 내려와 안변 석왕사를 거쳐 은심암에서 한철을 보내고, 함흥 서쪽에 있는 백운산 국제암에서 수년간 가행정진하였다. 다시 호남을 향하여 내려가다 병을 얻어 천보산 회암사의 차안당에서 사경을 헤매던 끝에 일어나 오승(梧頌)을 지으셨다.

도산(道山)
以道名山意欲觀(이도명산의욕관)
杖藜終日苦躑躅(장려종일구제반)
行行忽見山真面(행행혹견산진면)
雲自高飛水自流(운자고비수자원)

도라리를 지은 산을 보고 싶어서, 지팡이 짚고 하루 종일 고생고생 기어오르니,
가고 또 가다가 홀연히 산의 참모습 보았노라,
구름 절로 높이 날고 개울 물 절로 졸

대(臺)가 없어도 고경(古鏡)의 광명은 항상 비추고, 나무는 없어도 보리(菩提)는 스스로 완만하다.

은거하여 깊이 행하고 있는 속, 맑고 맑은 소리 또 보고 듣는데,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정신세계라 하나, 석자들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선지(禪智)로다.

구름과 반짝이는 별 그리고 밝은 달도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른바 천지만물은 나와 하나이며, 내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이 바르고, 기(我氣)가 순(順)하면 천지의 기(氣)도 순하다고 선사는 자주 설하였다. 또한 일동(一動), 일정(一靜), 일어(一語), 일묵(一墨)이 천리(天理)의 본연에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선사는 회광(回光)하는 경시성불(經是成佛), 즉 염불로서 마음을 돌아오게 하여 반조하는 선을 수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사는 우주의 근본진리에 계합하여 일생을 불교종후에 헌신하시다가 유생들의 탄압에 제주도로 유배되어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참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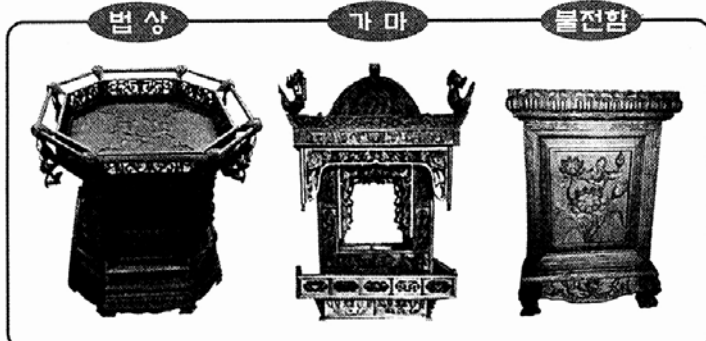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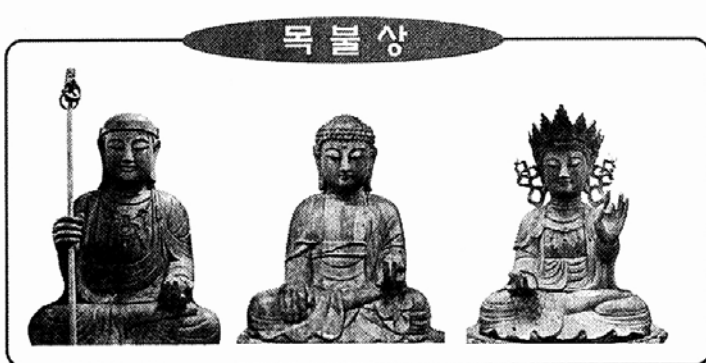
목조각에 흠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 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흠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전국대리점모집 *



특별 할인가

달마괘목

달마대사의 원력을 느껴 보십시오

- 대 ◆ 가격 : 9만 5천원
- 중 ◆ 가격 : 7만 5천원
- 소 ◆ 가격 : 5만 5천원

경상

전통 짜집기 공법으로 제작했습니다

- ◆ 크기 : 가로 100cm · 폭 37cm · 높이 45cm
- ◆ 가격 : 29만원